

2003년 교회표어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
(창 9:13)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 교회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정신여중고 내) 전화 : 02-416-5181 홈페이지 : www.pcltv.org

통권 제 59 호 / 발행일 : 2003년 11월 16일

초등부 달란트잔치? 어린이들의 천국 잔치!



장난감, 팬시문구, 풍선, 먹거리가 풍성한 어린이 잔치되어

초등부 달란트 잔치가 지난 11월 9일(주일), 3층 소년부 예배실에서 예배를 마친 후 시작되었다. 이번 달란트잔치는 봄 학기와 마찬가지로, 각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점수를 최고 200달란트까지 합산하여 주고 어린이들이 각자 물건을 고르는 바자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여자 아이들은 인형을, 남자 아이들은 게임기와 운동기구류를 위주로 골랐다. 전체적으로는 간단한 장난감, 팬시문구, 풍선아트칼 등을 선호하여 어린이다운 생각과 개성들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먹거리로 베이컨 떡꼬치, 오뎅, 컵라면, 핫초코 음료 등이 충분히 준비되어 어린이들이 물

건을 사고 음식도 먹으며 맘껏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초등부에서는 교회학교에 관한 흥미를 높이고, 어린이들 각자에게 즐거운 추억을 주고자 이러한 달란트잔치를 매년 준비하여 가져오고 있다.

초등부 이희진교사

11월 정기 당회 2004년도를 준비하며

2003년 11월 정기당회가 11월 8일 오전 6시에 4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먼저 사회선교위원장 김소일장로가 경남 마산시 진동면의 희망의 집 건립에 516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고, 수해헌금으로 3800만원이 모금되었다고 수해 구제활동 보고를 하였다.

이어 2004년 교인사진수첩 제작계획 및 작업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사진 편집은 남여 가나다순으로 하고, 은퇴장로를 추가하며, 타교회에서 이명하지 않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경우는 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논의가 있었다.

2004년 각 제직부서 확정 및 부서장 인선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안은 인사위원 및 감사위원과 함께 12월 당회에서 확정하기로 하였다.

예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회장, 당회서기, 재정위원장(문창복장로), 지난 해 감사(이병식장로)를 당연직 위원으로, 추천 위원으로 김소일장로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교회 행정장정 제4장 협동장로 항을 "타교회에서 장로의 임직을 받은 후 본 교회에서 이적하여 협동장로로 봉사하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이명증서 혹은 그에 준하는 확인절차를 거친 후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결의하였다. 이전에는 타교회에서 장로의 임직을 받은 후 본 교회로 등록한 후 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회의 인준을 받아 협동장로로 봉사하도록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등록 후 이명증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인준을 받으면 협동장로로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야외행사보다 은혜가 가득했던 소년부실의 달란트잔치

지난 1학기 달란트 잔치를 통해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초등부교사들의 하나 됨을 느꼈으며 학생들의 천국 잔치처럼 즐거운 축제 분위기와 해맑은 웃음이 돋보였던 성공적인 행사였기에 이번 2학기 달란트 잔치 또한 많은 기대와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의 그런 바람과 기도와는 달리 2일전부터 앞날에도 날씨는 비가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기 시작했다. 야외행사에 있어 최악의 상황이 연출됨으로 인해 우리는 부득불 계획하고 있던 야외달란트잔치를 아쉬움 반 실망감 반으로 하루 전 취소해야만 했다. 그때부터 장

소에 대한 걱정이 쌓여갔고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것은 없었으며 단지, 넓은 예배실과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소년부를 사용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었다. 곧 우리는 곧 왜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굿은 날씨를 주셨는가 깨닫게 되었다. 소년부는 우리의 미안함과 부담감에 찬 부탁을 조금의 주저나 망설임 없이 쾌히 승락해 주고 소년부의 불편을 감수하며 초등부를 위해 귀한 예배처소를 바꾸어 주었던 것이다. 아마도 주님은 알게 모르게 있을지 모를

오늘 4부예배 청년부 찬양축제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 4부 예배는 '위십 프레이즈 페스티벌' (Worship Praise Festival)이 열린다. 대강당에서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린 다음 2부 순서이다. 청년부 Young H.O.N(영혼) 팀의 준비는 11월 9일 리허설을 하느라 밤을 지냈고 연습은 이미 3개월 전부터 계속 되어왔다. '영혼의 갈망'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춤으로 표현한다. 또

한 참석한 성도들이 모두 다같이 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어울려 댈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번 행사를 알리기 위해 조그마한 광고 전단지도 만들어 돌린 young H.O.N. 그 아름다운 수고와 기도가 오늘 4부 예배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



정립전자 직원 초청 "작은 음악회" 친교 모습

[장애인부]

장애인의 날 작은음악회를 열어

모든 장애교우가 편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사회선교위원회 장애인부는 신형섭 집사 외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장애인 교우들의 교회출석과 신앙생활을 돕는 일 그리고 주위의 소외된 장애인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도하며, 분기 2회 전국의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하고 물품지원과 후원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격주로 금요일 오후 6시에 정립회관에서 성경공부모임 (구역장: 김창안 안수집사, 권찰: 한군희 집사)을 갖고 있으며, 출석 교우들에게 설날과 중추절에 간단한 선물 전달 및 교우들의 장애인에 대한 봉사시 필요한 물품구입,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주보 발행 및 점자성경구입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정립회관 강당에서 정립전자 근무직원들을 초청하여 "작은 음악회"를 개최

했는데, 70여명이 참석 하였으며 우리 교회 우측 권사와 청년부 강영은 양, 박영재 군이 현악 3중주를 연주하였다. 그 후에 현재까지 5명 (남미숙, 최인옥, 김지영, 이정순, 유병설)이 주님의교회에 등록하여 '레위파티'가 좋은 열매를 맺은 것 같다.

주일 1부, 2부 예배 후 지하식당 입구 오른쪽에서 식사하는 장애교우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교우들이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나누어 주면 감사하겠다.

앞으로의 사역방향은 장애를 갖고 소외된 삶을 사시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일과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희망의 삶이 되도록 협조하는 장애인부가 되는 것이다.

김창안 안수집사

[복지선교부]

바쁜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봉사

복지 선교부는 사회선교위원회에 속하여 있으며, 현재 회원 15명이 복지단체와 사회단체 20군데를 찾아가 물질과 봉사로 섬기고 있다. 또 성도들이 매월 정성스레 내어주시는 나눔의 물품을 정리 정돈하여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한다.

어느 집사는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 본부를 다녀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장기 및 의대생 실험용 시신이 턱없이 부족함을 보고는 그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도 했다. 복지 선교부는 탈북자 동지회를 후원한다. 나눔의 물품 보급으로 농촌 교회의 새신자가 증가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연초에 위원장과 함께 회원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만 전달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아픔과 슬픔도 함께 나누며 주님의교회 이름으로 사랑과 관심을 온전히 전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많이 애쓰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이달에는 복지행정을 보시는 집사님의 도움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또 선별적으로 관리, 자료를 파일로 정리하고자 지원단체를 5개조로 나누었다. 맡게는 원주, 청주, 경기도, 서울 근교 등을 담당 목사님과 위원장님과 회원들이 방문하는 중이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방문하며 느끼게 되는 것은 가난과 빈곤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

지고 배려하는 운동이 되어간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사랑의 운동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회를 아름답게,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랑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더 많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

복음은 시간과 물질이 많아야 전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놓는 희생과 헌신이 따를 때에야 비로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임한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

올해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눌 분들이 많이 많이 동참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복지선교부 이충길 정리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배려하는 운동이 되어간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사랑의 운동이 될 것이다.”

[학원선교부]

학원의 복음화를 꿈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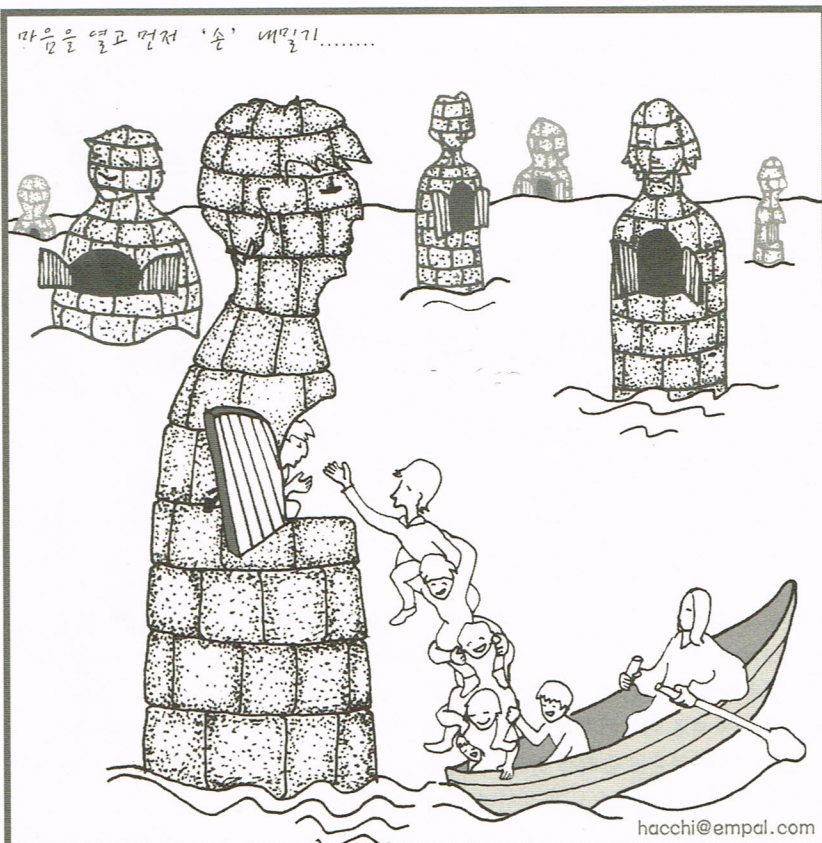
학원선교부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업과 영적성장을 위해 여러모로 돕고 있다. 학생들이 꿈과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향해 잘 달려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되도록 바르고 효율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님의교회 학원선교부에서는 현재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정신여중 학생들을 말씀으로 먹이시는 김효숙 목사님을 재정적으로 보조하며 정신여중, 고에서 결신한 학생들의 신앙을 계속 양육 지도하기 위하여 몇분의 집사님, 권사님이 매주마다 수고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선교비가 지원되고 있다. 또한 서울과학고 큐티 동아리(지도 김창동집사) 모임활동에 약간의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으며, 한성과학고 신앙씨클 활동(지도 하화주 집사)에 필요한 약간의 후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 외 8명의 학

생들에게 신앙활동이나 기타 지도를 위해 학교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기타 정신여중, 고 전체 학생들에게 부활절 축하 기념품을 보내기도 하였다.

아직도 많은 부족함을 느낀다. 도움을 원하는 많은 학생들과 우리가 해야 할 선교의 사명이 크다. 이들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이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위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많기에 더욱 더 열심히 기도하며 그들의 힘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함께 이 일을 위해 동역할길 원하는 교우가 있다면 감사한 일이다.

정양재 부서장



[유소년·소녀 축구클럽]

미사리 경기장에서 월드컵 스타 따라잡기



유소년 소녀 축구클럽은 11월 9일 주일 오후에 미사리경기장을 다녀왔다. 그동안 주일마다 1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소년소녀들이 운동장을 차지하여 즐겁게 축구를 해왔다. 11월 16일도 1시 30분이 되자 몇몇 남은 차들이 뒤늦게 운동장을 빠져나가고 몸 푸는 운동을 하는 아이들과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다. 그 뒤 나누어놓은 팀별로 축구를 하기 시작했다. 각자 단체 유니폼을 입고 있어 다양한 색깔을 이루고 있었다. 코치 선생님이 각 반을 맡아 관리하며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모든 아이들은 축구공을 따라 달렸고 지칠 줄 몰랐다. 몇 분의 어머니들은 초코파이와 음료를 준비해 주었고 몇 분의 아버지들은 아들이, 딸이 달리는 곳을 따라 바쁘게 눈으로 쫓아갔다. 실수를 하면 아쉬워하기도 하고 얼굴에는 한없는 웃음이 넘치고 있었다. 이들 몇 분을 찾아가 유소년 축구클럽의 중간과정을 들어보았다.

(손선일 집사는 가장 눈에 띄게 환히 웃으며 아들의 하나하나를 눈여겨보며 함께 축구를 하듯 즐거워하고 있었다)

손선일 집사: 성우는 친구 사귀는 거, 노는 걸 좋아하는데 미사리 경기장에도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보냈어요. 교회 친구도 사귀고 여러 가지로 대만족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들이 패스하는게 부족한데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지도받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그러나 전문인에게 배우는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윤경희 집사는 다른 집사님과 땀 흘리고 축구를 마친 아이들의 간식을 나눠주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었다)

윤경희 집사: 교회광고 보고 운동을 시킬 겸 결심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땀 흘리고 학교이외에 친구들과 교제하니 좋잖아요. 아이도 아주 좋아해요 잘 가르쳐

주시구요. 미사리경기장에 같이 갔는데 조별축구도 하고 어른들과 팀별로 축구도 했어요. 주위에 잔디밭이 없는데 넓은 잔디구장에서 뛰어 볼 수 있었어요. 더 바라는 점은 조 인원이 세분화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많이 봉사해주시고 애써주시니 참 감사할 뿐입니다

조현준(초3): 처음에 안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하라고 해서 시작했어요. 예전에 한번 축구교실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못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재미있어요. 여기서 하는 것 중 잡기놀이가 제일 재미있어요. 일렬로 쭉 서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잡는 놀이예요. 미사리경기장은 월드컵 축구선수들이 연습한 곳이에요. 거기서 축구를 하니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다 좋아요. 누나랑 나랑 축구하고 있는데 누나도 무척 좋아해요.

문혜영(초4): 축구는 남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축구는 남자만 하라고 정해진 건 아니예요. 여자도 할 수 있어요. 체력, 기술 같은 거 많이 배워서 좋아요. 공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친근감이 느껴져요. 즐겁고 재밌어요.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미사리경기장에서 뛰었을 때 진짜 선수가 된 것 같았어요.

(선한 눈매를 가진 덩치 좋은 이용수 집사님, 아이들에게 늘 친구처럼 대하며 따뜻한 웃음으로 아이들과 정답게 대화하는 모습이 참으로 감사했다. 다음은 이용수 집사의 이야기다)

이용수 집사: 김덕준 선생님이 사제를 털어서 종로 효제초등학교에서 일요축구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때 받은 빚을 다시 되돌려주어 베풀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90년부터 주님의교회는 다니고 있었고 문동학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문동학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가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열려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려는 목적도 있지요.

지금 중학생까지 120명인데 중학생은 11시~12시 30분에 하고 있고 초등학생은 1시 30분에서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자 아이들도 남녀 구분 없이 합니다. 5~6학년은 많지 않지만 1~2학년은 꽤 많습니다. 지금 각 반 담임역할을 맡고 있는 친구들은 모두 세종대 제자들입니다. 모두 선수생활을 했던 친구들이죠.

늦게 신앙생활해서 학생시절에 교회 다닌 적은 없습니다. 이 축구클럽으로 교회도 재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조금씩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소년 소녀 축구클럽은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 정신여중고 운동장에서 훈련모임을 갖고 있다.

[실버 찬양단]

‘앙코르 찬양단’으로 다시 태어나

이번 감사주일을 맞아 2부와 3부 예배 때 응답송을 앙코르 찬양단이 맡게 된다. 앙코르 찬양단의 이전 이름은 실버 찬양단이었는데 실버(silver)는 단지 노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노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름받고 쓰임받기를 소원한다는 뜻에서 앙코르 찬양단으로 명칭을 바꿨다. 앙코르는 불어로 “다시”(again)라는 뜻이다. 이번 앙코르 찬양단은 2부와 3부 예배 때 응답송으로 찬송가 30장 “여호와 하나님”을 편곡하여 부르게 된다. 찬양단 인원은 전체 40여분으로 대부분 60대와 70대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소식]

개인별 교적내용 확인

2004년 교인사진수첩제작을 위하여 개인별 교적내용을 확인바랍니다. 이번주일까지 교회복도에 게시될 개인별 교적 게시자료에 본인이 직접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되는 자료는 그동안 교구사역자들을 통하여 파악되고 수정된 자료입니다.

교인사진수첩에 기재된 주소, 연락처가 바뀌신 분은 사무실에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11월16일)까지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받습니다.

10월19일 이후 사무실로 수첩자료를 내신 분의 경우는 이번 게시자료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월7일(예정)의 최종게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단 3차 모임

1월 3-18일 15일간의 일정으로 이집트,요르단,이스라엘을 순례하기 위한

성지순례단 3차모임이 오늘 오후1시 1층 유아부실(교회사무실옆)에서 있습니다. 27명이 참가 신청을 하였으며 총무로 장승수 집사가 추천되어 앞으로 여행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문의:장승수집사 019-334-6956)

[교우소식]

피아노 독주회

윤라현 양(47구역 윤영민, 김소연 집사의 딸)이 11월 22일(토) 오후 3시에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서예그룹전

박재현집사가 원장으로 있는 말씀서원의 서예그룹전이 감리교신학대학원 100주년기념관에서 11월15-17일에 "서예"이, 강북구민회관에서 12월13일에 "빌립보서편"이 열린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의 신앙 박해를 피하여 아메리카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지었고, 아이들을 가르칠 학교를 지었으며, 그런 후 개인 집을 지었다. 낯설고 힘든 환경, 기후후속에도 농사를 지으며 황무지를 개간한 결과 가을에 첫곡식을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미국과 같은 11월의 4번째 목요일이 있는 주간, 즉 11월 3째주일을 매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다.

입교 및 세례자교육

입교 및 세례자 준비를 위한 교육이 11월9일(주일) 오후1시30분에 4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첫째 주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둘째 주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셋째 주는 "신앙생활, 성경, 교회, 신앙인의 사회생활에 대하여", 넷째 주는 "세례문답"으로 4주간 구성되어 진행될 교육과정으로 지난 9일은 4주 연속 과정의 첫 시간이었다. 정현희 목사가 인도한 이번 교육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자칫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들이 섬세하고 매우 진지하게 펼쳐졌다. 모인 사람들 모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고 받아 적기도 하였다. 인도자는 말씀을 마친 후 요한복음과 로마서 읽기와 매일 10분에서 20분씩 기도하는 습관을 드리기를 권유했다. 이 시간을 위해 특별히 정일웅 집사가 다과준비봉사를 해주었다. 입교 및 세례식은 12월 3일(수) 수요성경공부 시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입교 및 세례자 교육을 통해 참석한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체험을 기대한다.



[자원봉사연결]

순천 어린이마을에 성탄선물 보냅니다

전라도 순천에는 특별한 교원이 있다. 순천 SOS 어린이 마을로. 방이 4개로 이루어진 10채의 주택에는 여자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고 1채의 생활관에는 남자아이들이 살고있다. 대략 40~50명이 거주하고 있다. 여자아이에게는 자원 봉사를 하는 '처녀엄마'가 함께 또 남자아이에게는 남자선생님이 동거동락하며 지낸다. '처녀엄마'는 40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일반가정과 같이 생활해 나간다. 아이들에게 최대한 일반가정의 보금자리를 얻게 해주기 위해 엄마의 연령도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원장의 말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처녀엄마'를 친엄마로 생각하고 있고 다들 바 없는 가정생활을 하

고 있다고 한다. '처녀엄마'는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지만 지원금이 적어 본인의 부담으로 도 아이들을 돌본다고 한다.

주님의교회는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이 어린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주고자 한다. 보내온 목록에는 아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한 가지씩 적혀있다. 여러 다양하지만 그 중 가장 자주 보이는 선물은 추리닝, 스웨터, 손목시계, 문화상품권, 게임기, 골키퍼 장갑, 폼클렌징 등 이었다.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선물도 다양했다.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강당 로비벽면에 이 목록을 붙여놓을 것이다. 교우들은 그 아이들의 선물목록에서 하나를 지정해 자신의 이름을 적어두고 12월 7일까지 그 선물을 1층

로비 자원봉사자 연결팀에게 전해주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전달된다. 단, 선물뿐 아니라 자그마한 선물을 기다리는 눈동자들을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의 글을 적은 카드도 담아 보내주면 좋을 것 같다. 선물은 택배로 보내거나 평소 이곳을 자주 찾아가시는 권사님들이 전달하게 될 예정이다.

아이들이 곰곰이 생각하며 적었을 선물 한 가지,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데 주님의교회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길 기대해 본다.

성탄선물목록을 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고3 수련회와 야외 예배

11월 15-16일 경기도 수동 정동제일교회 수양관에서 1년 동안 취업과 입시로 지친 고3 학생들을 위한 1박 2일 수련회가 열리고 있다. 쉬고 나눴고 그리고 말씀이 있는 따뜻한 모임이 될 것이다. 또한 오는 16일은 고등부 전체 야외 예배를 같은 장소에서 가지게 된다. 콘크리트 구조물속에서 컴퓨터와 벗하고 지내는 친구들에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소년부실의 달란트잔치

>> 1면에서 계속

교회학교 부서간의 벽을 넘어서게 하신 것이다. 장소를 소년부로 바꾸어 치른 예배와 달란트잔치는 야외행사보다 더 은혜로웠으며 준비하는 교사나 참여한 아이들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한 순간이었다. 무엇보다 귀한 예배처소를 선뜻 배려해 주신 소년부로 인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음에 감사한다.

초등부 임봉수 집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 기사제보안내 ◆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축함을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핸드폰 : 011-466-4736

▶ 이메일 : chhylee@korea.com